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b>보도</b>	<b>2017.7.18.(화) 조간</b>	배포	2017.7.17.(월) 10:00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진창(02-2100-2990)	<b>담 당 자</b>	최 상 아 사무관 (02-2100-2993)		
	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장 최 성 환(02-3671-7350)		손 명 룡 상품개발팀장 (02-3671-7388)		
	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한 대 호(02-397-8602)		이 경 연 전략사업부장 (02-397-8680)		

## 제 목 : '17.7.18일부터 '채무조정졸업자' 전용 사이트들 대출 출시

- ☐ '17.7.18일(화)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'채무조정졸업자' 전용 사이트들 중금리 대출을 출시함
- ☐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이트들 대출은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일반 사이트들 대출 이용이 어려운 채무조정졸업자들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상품
  - 장기간 상환 노력으로 재기에 성공한 채무조정졸업자들이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원

### <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이트들 중금리 대출 출시 주요 내용 >

- ▶ (출시 기관) 25개 저축은행
- ▶ (연소득 요건) ① 근로소득자 : 5개월 이상 재직, 1,500만원 ↑  
 ② 사업소득자 : 6개월 이상 사업, 800만원 ↑  
 ③ 연금소득자 : 연금수령 1회 이상, 800만원 ↑
- ▶ (채무조정졸업 확인)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(개인워크아웃 면책결정문(개인회생) (단, 졸업 후 3년 이내)
- ▶ (금리) 상환능력에 따라 14~19%대 수준
- ▶ (한도) 상환능력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
- ▶ (공급액) 총 1,500억원 공급 목표,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공급 판단

## 1 도입 배경

- ☐ 채무조정 신청(인가)자는 매년 점진적 증가 추세이며, 졸업자\*는 최근 연 8~10만명 수준

\* 개인워크아웃 : ('14년) 7.6만명 → ('15년) 6.0만명 → ('16년) 5.1만명  
 개인회생 : ('14년) 3.2만명 → ('15년) 2.8만명

- ☐ 채무조정 졸업 후 3년 이내인 사람들의 금융이용비율은 58.1%로, 전체 취업자의 금융이용비율(70.7%) 대비 다소 낮은 편

- 일반 금융이용자 대비 은행업권 이용비율은 약 16.2%p 낮고, 저축은행,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은 편

### < 채무조정졸업자의 금융업권별 이용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분	금융업권							
	은행	보험	상호	카드	캐피탈	저축	대부	합계
금 액	19,420	3,834	12,849	2,881	1,740	4,016	2,974	47,714
구성비	(40.7%)	(8.0%)	(26.9%)	(6.0%)	(3.6%)	(8.4%)	(6.2%)	(100%)
전체 금융이용자	56.9%	4.1%	26.8%	2.4%	3.1%	1.6%	0.9%	100%

- 다만, 졸업 후 기간 경과에 따라 금융이용 비율은 점진적으로 상승\*

\* 금융이용비율 : (졸업후 1년) 52.9% → (졸업후 2년) 57.6% → (졸업후 3년) 61.9%

- ☐ 이러한 이용비율의 차이는 채무조정졸업자 중 일부(19.7%)의 경우 최근 수년간의 대출,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은행 등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

\* 특히,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CB사가 채무상환 이행기간 동안의 상환정보를 신복위로부터 입수하여 신용등급에 반영 가능하나, 개인회생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상환정보 확인 불가

-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채무조정졸업자에 대한 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, 재원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 곤란

\* 신복위 소액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의 22% 정도만 지원, 연간 130억원 수준

- 한편, 기존 사이트들 대출은 충분한 신용정보를 전제로 심사 모형을 구축하고 있어 금융정보가 부족한 채무조정졸업자는 이용 곤란

⇒ 은행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저리 대출 이용이 곤란하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필요

## 2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출시 방안

☐ (타겟 고객)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지 3년 이내인 저축은행 사잇돌2의 소득기준 충족자 중에서,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으로 기존 사잇돌 대출이 어려운 사람

☐ (소득 기준) 사잇돌2 대출과 동일

① 재직기간 5개월 이상\* 근로소득자 : 1,500만원 이상

\* 동일직장 기준(90일 이내 이직한 자의 前직장 재직기간 포함)

② 6개월 이상 사업소득자 : 800만원 이상

③ 1회 이상 연금수령자 : 800만원 이상

※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경우 합산하여 인정

근로·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 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

☐ (준비서류)

① 소득증빙 서류

- (급여소득자) 재직증명서\*와 근로소득증빙서류\*\*

\*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,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도 가능

\*\*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② 세무서 발급 소득 증명 ③ 급여통장 사본

- (사업소득자)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소득증빙서류\*

\* 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·납부계산서

- (연금소득자)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, 연금 수령증명서 등

② 채무조정졸업(3년 이내) 확인 서류

- (개인워크아웃, 프리워크아웃)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

- (개인회생) 면책결정문

☐ (대출한도) 1인당 최대 1,000만원 이내

\* 다만, 소득수준, 성실거래실적,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

☐ (대출기간) 최장 5년,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(거치기간 없음)

☐ (대출금리 등) 연 14~19% 예상

☐ (취급 저축은행) 총 25개 저축은행에서 취급

※ BNK, HK, IBK, KB, NH, SBI, 대한, 동원제일, 모아, 신한, 오케이, 웰컴, 진주, 키움, 페퍼, 한국투자, 대신, 드림, 머스트삼일, 세람, 스마트, 예가람, 현대, 고려, 대명

☐ (총 공급금액)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.15조원\* 중 1,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예정

\* 은행 9,000억원, 저축은행 10,500억원, 상호금융 2,000억원

☐ (출시일) '17.7.18(화)부터 대출 가능

## 3 기대 효과

☐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 개발로 신용정보가 부족한 졸업자도 저축은행을 통하여 중금리대출 이용이 가능

○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할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짐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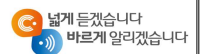
\* 저축은행의 채무조정자 대상 신용대출잔액은 1,109억원, 금리 28% 이상('15년말)

○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□ **(개황)** 전체 사잇돌 대출 실적은 총 7,828억원(76,174건) 규모('17.7.14.)

- (은행) 9개 은행('16.7.5일~) 및 4개 지방은행('16.9.1일~)에서 총 4,549억원(일평균 18.0억원, 총 41,568건) 지원
- (저축은행) 38개 저축은행('16.9.6일~)에서 총 3,064억원(일평균 14.3억원, 총 33,790건) 지원
- (상호금융) 신협·농·수협·새마을금고('17.6.13일~)에서 총 91억원(일평균 3.8억원, 총 816건) 지원 되었으며,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\*  
\* (1주차) 9.1억원 → (2주차) 20.0억원 → (3주차) 22.3억원

□ **(대출금리)** 평균금리는 은행 7.56%, 상호금융 8.74%, 저축은행 16.58% 수준

< 금리대별 대출 비중 (단위 : %) >

	~6%	6%	7%	8%	9%	10%	11%	12%	13%	14%	15%	16%	17%	18%	19%
은행	7.0	24.6	32.5	20.5	10.2	4.5	0.6								
상호금융	3.6	6.7	15.3	21.8	22.0	18.5	7.9	2.3	0.9	0.9					
저축은행				0.2	0.1	0.7	1.0	2.9	1.8	9.5	16.2	18.5	26.2	15.9	7.0

□ **(대출금액)**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 1,124만원, 상호금융 1,115만원, 저축은행 907만원 수준

□ **(신용도)** 은행은 3~6등급(78.4%), 상호금융은 4~7등급(86.9%), 저축은행은 5~8등급(94.0%) 중심으로 대출 실행

< 신용등급별 대출 비중 (KCB 등급 기준, %) >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은행	4.0	10.0	16.7	22.2	24.3	15.3	7.6	0.1	-
상호금융	0.9	2.8	8.5	18.0	27.3	27.7	13.9	0.6	0.1
저축은행	0.1	0.4	1.5	3.8	10.9	23.5	52.1	7.6	0.1

□ **(이용 연령층)** 은행·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자 중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(각 34.7%, 38.2%), 상호금융권 대출자는 40~50대의 비중이 61.6%으로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은 편

□ **(운용실적 평가)** 은행·저축은행·상호금융 사잇돌은 모두 대출 규모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,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 및 금리도 당초 목표했던 수준을 유지

□ 또한, 사잇돌 대출을 촉매제로 민간 중금리시장도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'17.1분기 중 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, 상호금융의 중금리 대출\* 취급액은 6,339억원으로, '16.1분기 취급액(1,656억원)의 3.8배 수준

\* 평균금리가 18% 이하이고 4~10등급 차주에게 70% 이상 실행된 상품(사잇돌 제외)

※ 지난 '17.6.13일 출시된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안착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, 은행·저축은행 사잇돌을 보완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

①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모는 은행·저축은행에 비해 작으나, 현 금융 시장 상황 및 업권 특성 등 감안시 적절한 수준

-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신용대출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출시되어, 대출 영업이 제한적

- 단위조합 규모가 영세하고 신용대출 취급 경험이 부족한 상호금융권 특성상 신상품 출시 이후 영업점 판매가 안정화되기까지의 시간차 발생

② 그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·어업인 등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- 농업인 A씨(신용등급 6등급, 연소득 : 1,200만원)는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평소 거래하던 농협을 통해 상호금융 사잇돌 이용(대출액 1,380만원, 금리 9.07%, 만기 3년)

- 기존에 영농자금대출 및 담보대출 등을 이용하고 있어 추가적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소득 증빙으로 하여 사잇돌 대출 이용

③ 또한, 상호금융조합이 전국 각지에 소재하고 있어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 연령층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